

‘주머니 팍팍’...청년희망적금 4명 중 1명 깎다

고물가·고금리에 여력 급감...전국 70만 중도 해지 현 정부 ‘청년도약계좌’도 이탈 방지 추가 대책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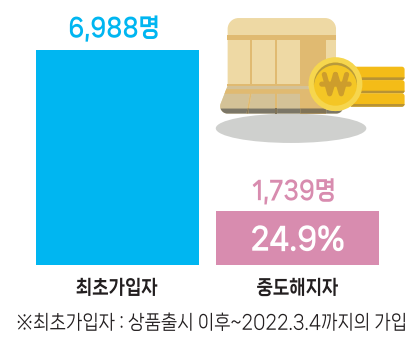
광주은행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4명 중 1명은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황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 적금을 깨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상품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천546명에 달했으나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천87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가 가장 높았다.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등이 뒤를 이었다.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꼭 채워 납입한 청년들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1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애초 납입 여력이 되는 청년들이 납입기간에 생김 변수에도 대처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중도 해지율이 낮은 편이었다.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지율은 21.2%인데 반해 가입 하한 연령인 만 19세의 해지율은 27.9%에 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높은 금리 수준에 출시 초기 은행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 당시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0만명으로 예측했으나 300만명에 가까운

광주은행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강민국 의원실 (2023년 5월말 기준)



가입자가 몰렸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30 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리며 중도 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만기 시 한꺼번에 지급되는 구조라 매달 쌓이는 이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도

중도 해지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정책 목표 아래 최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방지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천3천원)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 가량 길지만 적금 유지율 목표는 70%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며 “추가적인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해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급전 수요에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매달 쌓이는 정부 지원금과 이자 수준을 은행 계좌나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돈 쌓이는 재미’를 더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가 4명 중 1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제 불황 장기화와 연령대 특성상 등 이유로 만기룰 채우지 못하고 적금을 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택가 전기 계량기.

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1kWh당 5원 유지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1~2분기 요금 인상에 이어 3분기 동결 조치는 전력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국민의 부담을 고려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

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한전 역대급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45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 한전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산업 구조 변화 등 대응”...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

광주상의, 1차 회의 개최...광융합·가전·스마트 기업 참여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3층 회의실에서 광융합·가전·스마트 뿌리산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력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력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택캐리어㈜, ㈜우리로, ㈜우성정공 등 산업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광주시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자체 및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까지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상의는 고용현안에 적합한 이슈 발굴 및 고용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융합·가전·스마트 뿌리산업 ▲

모빌리티·반도체 ▲인공지능·데이터 ▲에너지·메디칼스캐어 등 4개 산업군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 2대 기반 산업인 광융합·가전, 스마트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업 실무자들이 대부분 참석, 산업전환에 대한 지역 기업의 대응 상

황과 정부, 지자체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저탄소,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강조병 협력사업본부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조기 폐쇄...업계 “정부 규제개선 등 지원 필요”

고려시멘트가 노조 파업을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장성 공장을 폐쇄했다. 시멘트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에 환경규제라는 이중고를 겪는 업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멘트 가격 인상과 함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지난 13일 장성 생산공장 라인

가동 중단과 함께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고려시멘트는 애초 경영 악화와 정

부 환경규제에 따른 시설투자비 증가 등 이유로 장성 생산공장 운영을 내달 중순께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해말 노조에 공지했었다. /연합뉴스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방법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복벽이와 문틈으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